**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느헤미야 2장 11-20절>

11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16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7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Vision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비전이란 말을 정의하자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마음 속의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는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 말을 누구보다 애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나는 어떤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저도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무던히도 던졌습니다. 많이 고뇌했고 많이 답답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내 꿈을 이루려 노력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착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을 구분할 능력이 지금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새삼 깨닫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또 비전을 갈망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깊이 알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또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치러야 할 현실적인 대가가 무엇인지, 그로 인한 장기적인 유익은 또 무엇인지, 심각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진정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분 마음 속의 그림을 나도 함께 그리면서, 그것을 위해 내게 무슨 일이 맡겨지든 감사함으로 감당할 채비를 갖추는 데는 그 만큼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히기보다 비전을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람만큼 훌륭히 살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가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느 야심한 시간에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터 위에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새 유다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성벽이 있던 자리들을 하나 하나 더듬어 가면서, 그는 한 가지 생각에 골똘히 잠깁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에서 그는 이것을,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 바로 그 비전 때문에 그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혜미야는 과연 어떤 인물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포로기 역사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 거기 정착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났을 때,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신흥제국 페르시아에 의해 다시 정복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는 획기적인 포로정책을 취합니다. 유다 포로들 가운데 원하는 자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이란 사람의 인도 하에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그들이 돌아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학자 에스라를 필두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이 귀환했는데, 그들은 율법과 예전을 바로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이 술 관원이라는 직책은 왕이 자기 생명을 내맡길 만큼의 최측근직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매우 신뢰하는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그 타국에서 나름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의 형편을 전해듣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힙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깨어진 유다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비전입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제가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제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

그러던 어느날, 포도주를 바치는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왕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놀랍게도 왕은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다음 대답합니다.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가는 길에 필요한 왕의 조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 등, 이미 머릿 속에 생각해 놓았던 구체적인 필요들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허락을 받고, 그는 새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부터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 앞에서, 그것을 아파하며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터를 조용히 돌아본 후, 그 공동체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전하자,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면서,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기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 일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도 존재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직전까지, 그들은 그 혼란스런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 유다 총독 느헤미야와 그가 벌이려는 새로운 일로 인해 기득권을 빼앗기길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그 새 역사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폅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려 하는 것이냐?” 그러자 느헤미야는 다음의 말로 그 비방의 말을 일축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 한다. 하지만 이 일에 동참치 않는 너희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을 것이며, 역사에 기억됨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또한 성취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지만, 그로 인해 뒤로 물러서기보다,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에 작게나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공사가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각각 그들의 거주지 근처 성벽의 건축에 참여합니다. 공사가 진척되고 성의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간다는 소식을 듣고 방해자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풍지박산을 내기로 모의합니다. 이 상황은 적잖은 유대인들을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뜨립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힘이 다 빠졌으니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게 틀림없어.”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무려 열 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얼른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무장한 병력을 성에 배치합니다. 그러고나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다시 신앙 안에서 담대히 무장됩니다. 그와 함께 방해자들은 움찔하며 스스로 한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공사는 재개됩니다. 일부 무장한 병력이 일하는 사람들을 엄호합니다. 일하는 자들 역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일을 합니다. 일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었으나, 그들의 정신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 힘겨운 노력 속에서 성벽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섭니다. 그러자 방해세력들은 그 역사를 무너뜨릴 마지막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지금 네가 유다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면 유대인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만나서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하자.” 유대인들의 손을 피곤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속셈을 느혜미야는 간파합니다. “너희가 말한 그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희가 스스로 지어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번은 동료 스마야가 제안하기를 “오늘밤 저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성전 안 외소에 들어가서 나와 같이 숨읍시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나 같은 지도자가 어찌 도망하겠으며, 제사장이 아닌 내가 어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해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만든 다음, 그것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한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태도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은 더 분명하고 견고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거짓된 이야기가 돌 수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벽 공사가 52일만에 끝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감격에 젖었고, 방해세력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깨어진 유다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비전에 다시금 헌신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가난한 동족들을 내 형제처럼 서로 돌보도록 권면하고, 이를 위해 그 자신부터 손해를 감수합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느혜미야처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십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의 길,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유를 다 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 인생 전체를 걸라는 뜻입니다. 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꿈에 나를 헌신하는 삶을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배회하면서 적당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로잡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삶의 모습에 대해 배울 수 있지만, 그가 품었던 비전을 동일하게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처해 있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사로잡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은 복음의 빛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 땅에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는 특정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종, 민족, 문화, 계층을 초월하여 온 인류를 이 하나님 나라에로 초대합니다. 이천 년 전 이 땅에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과 삶으로 그 나라의 실재를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이 땅에 심겨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보이지 않게 확장되어가고 있는 나라이며, 역사의 마지막 다시오실 예수님과 함께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날 나라입니다. 성경은 그 나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젖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사 11:6,8-9)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사 60:18)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10)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계 21:4)

이처럼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과 적대감, 해 됨과 상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폭력과 파괴가 없는 나라입니다. 눈물과 사망, 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즉, 의와 평화,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과 적대감이 가득하고, 그리하여 서로간에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개개인의 이기심이 부딪히면서 폭력과 파괴가 난무하게 되고, 고통과 사망, 아픔과 눈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며, 거짓을 진실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억울함에 소리없이 눈물 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죄인들을 정죄하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때 천국에서 모두가 함께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십자가 고통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의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몸을 헐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비전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 확장되고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할 일이 정말 많지만, 그 일을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에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바르고 성실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할까, 혼자서 머릿속으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더욱 열려지기를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어제는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 순교 59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카톨릭교회의 부패와 오류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다가 죽었습니다. 구시가 후스 동상 아랫쪽에는 그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발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하십시오.” 이 말 속에는 후스가 품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일부 사람들에게 독점되어 있던 당대 현실 속에서, 후스는 그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었지만 그 비전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인생,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현실을 향한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부터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분의 종된 우리의 신실한 삶과 기도로 지탱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결국 성취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다가, 마지막 때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감격에 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 당신이 보고 계신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이 머문 곳에 우리 마음도 머물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 많은 것들을 주님과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기를 소망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